

# 明知大學 電氣工學科의 紹介

姜 錫 圭\*

서울의 관문인 南大門앞에 있는 明知大學(前 서울文理師範大學)은 대한민국에서 第一 交通이 편리한 곳에 있는 大學이다. 交通이 편리 하다고해서 시끄러운 것은 아니고 주택가 속에 위치해 있으므로 딱 조용하다. 이와같이 편리한 交通과 조용한 주위가 우선 外形의으로 나타나는 이 大學의 特色이다. 現在 15층 建物을 設計하여 工事中이므로 多少 여수선하고 소란한 감도 없지 않으나 이는 建設을 爲한 소음이므로 명당한 氣分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建物이 3年後 完成되면 우리나라 大學中에서는 第一 높은 建物이 될 것이다.

本 大學 電氣工學科는 1962年度에 新設된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現 施設이 만족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도 學生들이 熱心히 工夫하여 每年 韓國 電力을 위시하여 여러 會社 業所의 入社 就職試驗에는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하여 現在 근무하고 있으며 1963, 1964年度에는 在學生中 몇명씩의 電檢合格者를 낸 事實과 本校 卒業生中 병역을 뚫은 사람으로서는 전원 취직이 되었다는 사실 등은 앞으로의 大發展을 위한 좋은 징조가 될 줄 안다.

本科의 建立 順序는 우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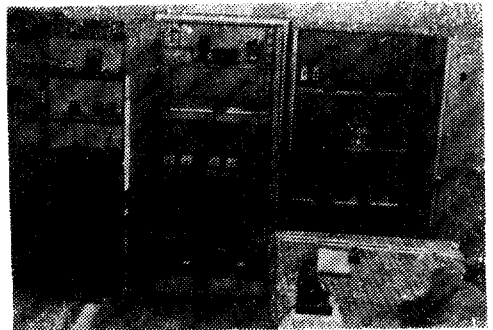


이 教育」이므로 훌륭한 指導者 즉 우수한 教 講師의 확보를 첫 目標로 삼았다.

現在 本科의 教 講師는 21名으로서 서울工大, 延世理工大, 漢陽工大等 各 工大의 권위교수 및 電檢考試委員12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大韓電氣學會 會長이신 李宗日 博士를 專任教授로 모시어 學會와의 긴밀한 關係를 맺고 있어 우수한 指導者의 확보라는 첫단계의 目標는 達成된 셈이다.

다음에 이 우수한 指導者 밑에서 誠實 有能한 技術

者를 양성할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學生指標로서 國家考試(電檢)를 위시하여 各 資格試驗 취직시험에 많이 합격시키자는 것으로 그 一部가 앞에서 예거한 바와 같이 實現 도중에 있거니와 이를 達成하기 爲하여 本科內에서 色다른 計劃이 進行中에 있다. 그 一部를 소개하면 學生 自治 靚睦會(明知大學電氣學會)가 있는데 1963년에 同 친목회의 決議로서 會費 全額을 科所屬 教講師 一同 앞으로 내놓아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試驗指導 참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本科의 目標인 電檢合格을 해야겠는데 그 準備 工夫에 적당한 참고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春秋야유회등으로 놀고 즐기는 자금을 가지고 工夫하는데 쓰겠다는 가혹한 취지에 教講師 一同이 감동하여 全員이 그해 여름 방학을 희생하고 집필하여 나오게된 책이 「電檢指針」(明知大學 電氣學會編 理工社刊)이다. 이런 종류의 冊은 事實 各 專攻別 집필자를 망라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冊자체가 大衆的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판매 部數가 적어서 出版이 어려운 性質의 것인 것이다. 또한 이것이 傳統仁 하여 다음해 즉 작년에는 같은 취지로 취직시험 工夫 준비 참고서로 發行되어 나온 것이 「電氣技術試驗指針」(明知大學電氣學會編 理工社刊)이다. 출발 취지가 좋았는지 冊內容이 좋았는지 하여간 多幸히 이 方面의 好評을 받아 現在 再版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



속에서 生活하기 때문에 이곳 電氣工學科 學生들은 工夫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다. 「엄게나 자기 運命은 自己가 開拓하여야 한다」는 것이 本科 學生들의 立身觀이다. 이는 또한 「誠實 有能한 일꾼 양성」이란 本校의 指導 精神에도 합치되어 앞으로 發展과 나가는 出發點이기도 하다.

本科는 強電을 취급하는 電氣工學科와 弱電을 취급하는 電子工學科의 둘을 합친 것으로서 3學年 1學期

\*明知大 教授·正會員

까지는 共通科目으로 受講하고 3學年 2學期 부터 分班하여 講義와 實驗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初級大學 2年制가 있는데 이는 夜間部로서 主로 職場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短期大學이다. 實驗 施設面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로서 基礎實驗部分은 거이 갖추어질 것이며 年次的으로 實驗설비를 計劃해서 차차 특수 實驗部分까지 갖추어 他大學에 比하여 손색 없는 電氣工學科 實驗室을 만들 計劃이다. 現在 基礎實驗室, 弱電實驗室, 強電實驗室, 特殊實驗室을 만들어 設비중에 있다. 유능하고 誠實한 技術者 양성을 위하여 本大學에서는 各學年 카운셀링을 두워서 學科 指導는 물론 各個人의 가정문제 또는 장래의 計劃問題 까지도 풀어 주어 모든 잡념을 버리고 工夫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初級大學으로는 2回 卒業生을 배출하였고 4年制 正規大學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全學年(1學年부터 4學년까지)을 갖추었다. 작년 여름에는 임시 휴교기간중 學生들의 요청에 의하여 本大學과 大韓電氣主任技術者 協會 共同 主催로 第1回 電檢講習會를 公開 開催하여 2百餘名의 受講生들이 모여 大盛況을 이루었고 결과도 매우 좋아서 本校生을 포함하여 여러사람의 合格者를 내었다. (1965年 5月 12日 接受)

人的 가정문제 또는 장래의 計劃問題 까지도 풀어 주어 모든 잡념을 버리고 工夫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初級大學으로는 2回 卒業生을 배출하였고 4年制 正規大學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全學年(1學年부터 4學년까지)을 갖추었다. 작년 여름에는 임시 휴교기간중 學生들의 요청에 의하여 本大學과 大韓電氣主任技術者 協會 共同 主催로 第1回 電檢講習會를 公開 開催하여 2百餘名의 受講生들이 모여 大盛況을 이루었고 결과도 매우 좋아서 本校生을 포함하여 여러사람의 合格者를 내었다. (1965年 5月 12日 接受)

### 職場別 連絡責任者 一覽表

職 場 名	連 絡 者	職 場 名	連 絡 者	職 場 名	連 絡 者	
韓 電	本 華 川 水 社 崔 昌 根	韓 電	漢 江 水 力 春 分 所 孫 貴 萬	韓 電	全 州 營 業 所 李 洪 法	
	華 川 水 力 崔 裕 學		津 江 建 設 事 務 所 金 炳 九		全 南 支 店 梁 玄 碩	
	清 平 水 力 史 斗 祥		群 山 建 設 事 務 所 成 壽 永		木 浦 營 業 所 玄 建 權	
	蟾 津 江 水 力 孔 政 吉		電 氣 試 驗 院 尹 李 尹		濟 州 營 業 所 朴 權 一	
	寶 城 山 水 力 李 昌 植		社 員 研 修 部 朴 承 培		慶 北 支 店 金 容 滋	
	梔 山 水 火 力 李 權 基		色 變 支 店 申 林 世		大 邱 變 電 所 李 最 在	
	寧 越 山 火 力 申 錫 錫		京 平 變 電 所 水 原 營 業 支 店 尹 李 錫		大 邱 東 部 營 業 所 李 炳 柱	
	馬 山 火 力 林 錫 錫		富 平 變 電 所 江 原 支 店 忠 忠 忠		大 邱 西 部 營 業 所 金 大 成	
	三 陟 火 力 尹 李 錫		水 江 忠 忠 忠		安 東 營 業 所 李 炳 柱	
	唐 往 光 州 木 釜 釜		大 田 支 店 大 田 支 店 大 田 支 店		慶 尚 南 道 營 業 所 李 成 龍	
學 校	서 延 世 工 大 梁 錫 錫	學 校	仁 荷 工 大 李 柱 根	學 校	忠 州 初 工 大 李 衡 載	
	延 世 工 大 楊 仁 允		朝 北 工 大 趙 正 夏		釜 山 工 業 專 門 林 淳 烈	
	慶 明 知 工 大 姜 錫 泰		全 南 山 工 大 黃 煥 煥		大 田 工 業 專 門 林 大 諱	
商 交	工 通 部 金 知 變	中 央 電 氣 通 信 試 驗 所 中 基 善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炭 公 社 崔 雲 龍	
	部 林 仁 變		原 子 力 研 究 所 鄭 萬 永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炭 公 社 崔 雲 龍
國 現 湖 南 金	際 電 氣 崔 大 賢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代 建 設 業 金 大 珠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永 工 場 金 永 千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	大 韓 石 公 恩 城 鑛 業 所 孫 枝 秀